



김희균 · 최경인 · 지명 · 명재 선교사의

바누아투 선교 이야기

※ 함차케 도착하는 2023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올 한해도 바누아투 선교를 위해 함께 걸어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너무도 무더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후끈한 열기를 내뿜는 한낮에는 이것마저 역부족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부는 카페가 간절하지만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안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은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현지 사역자들도 하나둘 각자의 섬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잠시 한 달 정도의 쉼을 갖고 내년 1월 말에 돌아와 다시 부시 선교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몇 달간의 시간 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는 찬양이 고백 되어지는 시간 들이었습니다.

• 선교 훈련학교

여러 섬에서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교에 투입하기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산토 섬에 선교를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스텝들과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6명의 학생 중에는 부시 마을에서 내려온 3명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고 쓰지 못해 훈련과정을 잘 따라올지,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6주의 성경공부와 9주의 현장실습을 한 학기로 총 3학기, 1년과정 훈련 커리큘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워하면서도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초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며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적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 소식들이 매 주마다 연속해서 들려왔고 그로 인해 슬픔이 우리 안에 계속 되면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젊은이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관계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설득도 해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성교육에 순결서약서까지 작성 하였지만 학생들은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이성 간의 잘못된 관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다섯 명의 학생들을 각자의 섬으로 다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 성공적인 재건축 그러나 무너진 영성

태풍 이후 건물들의 재건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0% 이상 재건축 되었고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건물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우는 것 또한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내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건물들은 멋있게 세워졌지만, 현지 사역자들의 영적인 모습들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술과 마리화나, 잘못된 이성과의 관계 등으로 여러 사역자들이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이제 막 영적인 재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 선교 훈련학교 수업 진행 중

• 그래도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번 텀(8월말~12월초)에도 현지 사역자들이 각각의 미션필드로 흩어져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중 지난 기간에 재건축을 마쳤던 '탈루에레' 지역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탈루에레' 윗 지역에 강 건너 '제랄리우'라는 마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탈루에레'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번갈아 가며 매 주일마다 그 마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탈루에레' 교회를 재건축할 때 '제랄리우' 마을에서 온 2명의 젊은이(존과 아딸로)가 건축 일을 돕다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교 훈련과정에 합류하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둘 다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가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 계속되는 재건축과 양계 프로젝트

선교센터 안에 있는 스텝들의 집들이 너무 낡아 재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 이 일에 집중해서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 필요한 시점에 뉴질랜드에서 목수로 일하는 한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술레술레'에서는 부시 마을에서 내려온 아이들을 돌보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50여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기숙사 3동이 태풍 이후 많이 망가졌었는데 지난 2년간 재건축을 하지 못해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자재 공급이 제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공사가 멈춤과 진행을 반복해가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랄리우'에서 내려온 두 학생의 세례식

센터 내에서 '양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병아리를 공수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는 여정이 길어 많은 병아리들이 도착하자마자 죽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양계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산에서 사육하는 현지 사육자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에 찾는 일은 현지 사육자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산으로 올려보내 현지 사육자들이 계란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교센터의 운영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선교 자립을 위한 작은 발걸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교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와 학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양계 프로젝트가 잘 진행 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족들의 건강

이번 기간에는 가족 모두가 유난히도 많이 아팠습니다. 날씨가 주변 환경 탓인지 아니면 음식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원인 모르게 자주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도 한 번씩 크게 앓아 누웠고, 특히 두 아이들이 자주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지명이는 운동 중에 쇄골이 골절되어 뼈가 잘 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코로나를 신경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코로나의 증상과 비슷해 코로나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건 아닌지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또한 저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는데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피소드

‘라빠’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선교사역 마무리 행사 참석과 교회, 학교 건축을 위해 답사차 방문하였습니다. 두 개의 산을 넘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중간에 길까지 잃어버려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9시간을 걸어 캄캄해져서야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거기에 있어야 할 현지 사역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일찍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는 길에 서로 만났어야 하는데 그들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길을 잃어 2시간 동안 헤맬 때 현지 사역자들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 믿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사실 올라오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고민했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벌여놓은 일들을 멈추고 가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걸어 올라가면서도 돌아갈까를 고민했었는데 만약 가는 길에 내려오는 현지 사역자들을 만났다면 돌아가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2시간 동안 길을 잃어 헤매게 하셔서 내려오는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사람들 중에 ‘알리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는데 다른 부족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전통신앙을 따르고 있었는데 길 안내차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지속해서 주셨습니다. ‘라빠’에서 머무는 동안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자매는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의 고백과 신앙이 지속되며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빠’ 마을에서의 일을 다 보고 산을 내려 오는데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걷다 보니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쯤 강을 따라 걷는데 무릎을 굽히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 더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내리려면 무릎을 반드시 굽혀 힘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산을 오르기도 전에 이러니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2명과 알리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통증은 있었지만 무릎이 조금 굽혀졌습니다. 그렇게 산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다음 산을 오르기 전 한 번 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더 굽혀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산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마을에 도달 했을 때에는 어느덧 무릎에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두 다리는 오히려 힘차게 걷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걸어온 이들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PRAYER

1. 현지 사역자들이 각자의 섬과 집으로 돌아가 잠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되고 잘 준비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2. 저희 가정은 선교센터에 남아 이곳을 돌보며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년 1월 말에 있는 컨퍼런스와 다시 시작되는 선교훈련 학교를 위해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3. 가장 무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선교센터 주변으로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는데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4. 내년 초에 시작되는 선교센터 내의 채플실 건축과 라빠 부시 마을의 교회, 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5. 내년 부시미션을 위해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PHOTO



▲ '보투마사' 마을에서 예배하는 모습.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 예배하는 이가 적습니다. 속히 이 마을에 바른 목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라빠' 마을에서 예배하는 모습. 내년부터 교회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 선교센터 내 스텝 하우스 재건축 중.



▲ 올해 마지막 컨퍼런스. 여자 선교사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찬양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 '라빠'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 알리스(왼쪽). 믿음이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 올 한해 함께 수고한 모든 현지 사역자들과의 사진촬영.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